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2011년이 저물어갑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1년 한 해 동안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한 여성의 삶', 그리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이루기 위해 많은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와 사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본인은 지난 8월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줄곧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고심하는 한편,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性認知豫算, Gender Budget), 성인지 통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슈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여성가족연구원과도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말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개발원조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성인지 통계의 생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개발원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계기로 젠더관점(남녀의 성별에 따른 관점)은 세계적 화두로 대두되었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주요 계획 및 사업 등에도 젠더 관점의 분석과 평가,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연구사업과 연구테마들을 리뷰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평등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다가오는 2012년에는 한국 사회 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젠더관련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정책 연구의 현장성 제고'를 연구분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정책을 통한 성평등 및 여성인권 보장', '성평등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가족 및 저출산, 여성 인권, 일자리, 평등문화, 안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성인지 통계 등의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 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2011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젠더리뷰 겨울호에서는 올해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배경과 전망, 향후 정책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방향,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현황과 과제,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방안 등을 짚어봅니다. 이로써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의 법제화로 인해 여성정책의 지평이 어떻게 확대되고 성주류화(性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지를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슈브리프에서는 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장애여성 인권 문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문제, 미혼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국제리뷰에서는 OECD, UN OHCHR, UNDAW의 관계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여성정책 기조와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짚어봄으로써, 한국 여성정책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향후 여성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호주 빅토리아주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고자 호주 중앙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이 여성이 살기에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연구노트에서는 2011년에 수행되었던 주요 연구과제들 중 맞벌이가구 자녀돌봄 지원,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 실태, 여성 국회의원 증가와 함의를 천착한 연구과제들을 리뷰했습니다.

임진년 2012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수준 높은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한 단계 더 격상되며, UN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속에서 활발한 젠더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